

어등산 골프장 무리한 영업 강행 ... 부작용 속출

돈벌이 ‘혈안’ 주민 고통 ‘나몰라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의 핵심인 테마파크 건설사업은 뒤로 미루고 골프장만 선(先) 개장하는데 따른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사업자가 진입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조성이나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일 광주시와 어등산CC에 따르면, 어등산관광단지 부지내에 조성된 어등산CC는 광주시가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이 뒤 개장을 위한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달 초순께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등산CC는 주 진출입 도로의 교통체증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클럽하우스까지 연결된 진입로 곳곳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여서 이용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주민들이 골프장 영업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주민·이용객 호소 각종 문제점

상습 교통체증 ... 별도의 진·출입로 확보해야

클럽하우스 가는 길 급경사·급커브 안전 위험

절개지 낙석 방지벽 없이 차량통행 위태위태

인공호수에 운수천 농업용수 고갈 영농차질

광산시민연대 등 시민환경단체

“피해 해결책 없으면 강력 대처”

지역민들에 따르면, 어등산CC는 주 진출입 도로가 평소에도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상태로 골프장 개장 이후 이용객들이 늘어나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심한 교통체증

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도로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 때면 시내에서 평동공단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상습 체증이 빚어지고 있는 곳으로, 교통 환

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구간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어등산CC를 이용하는 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출입로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진출입로에서 클럽하우스까지 연결된 도로도 급경사에다 굴곡도 심해 겨울철 빙판길이 형성될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도로 한쪽 옆의 절개지가 지표면과 거의 수직상태여서 자칫 암석조각들이 도로 쪽으로 무너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낙석 방지벽 등도 설치되지 않은 채 차량통행이 이뤄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농업용수 고갈과 농약 피해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골프장 잔디에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골프장 내에 인공 담수호를 만들다보니 정작 농사에 사용돼야 할 물이 줄어 영농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갑원(63) 어등산CC피해대책위원장은 “골프장 때문에 국가 2급 하천인 운수천이 고갈된 것은 물론 골프장 측이 공사 과정에서 농수로를



위험천만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관광단지내에 위치한 ‘어등산골프장’이 시범라운딩에 나선 가운데 진입로에서 클럽하우스까지 연결된 도로 옆 절개지가 방치돼 이용객들이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파헤쳐 놓고도 아직까지 훼손된 상태로 방치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골프장 개장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데도 해당 사업자가 영업을 강행할 뜻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양진 광산시민연대 환경분과 대표는 “골프장 사업자가 돈벌이에만 급급해 공익을 저버리고 있다”며 “조만간 자체 협의를 거쳐 피해대책위원회와

협력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등산CC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입로는 현재 임시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광주시 소관”이라며 “피해 주민들과는 광주시에 기부를 약속했던 대중홀(9홀)수익금 가운데 30%를 우선 배려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 신대 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 문의 학 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광주시·전남도 국비 추가 확보 총력전

광주 문화전당 등 31건·전남 F1 등 11건 증액 요청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비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실무자들은 1일 2013년 국고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현재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지원, 압해~압태간 새천년 대교 건설 등 11개 사업을 내년 지역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예산 확보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내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비 800억원 중 30%인 240억원을 정부에 지원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돼 국회에 국비

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또 새천년대교 건설 사업은 1000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반영액은 810억원에 그쳤고, 2500억원을 요청한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도 720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이에 전남도는 국회에 F1 240억원, 새천년대교 건설 사업 690억원,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건설 178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 예산에서 전액 누락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1000억원) ▲압해~화원간 연결도로 개설(200억원)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156억원) ▲차부품 연구개발(130억

원) ▲가거도 관광자원화 사업(30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 ▲양식업 조성 ▲보성~임성간 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서울에서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한국도시광산기술원 광주 설립(40억원) ▲한국에너지연구원 광주 분원 설립(70억원) ▲KTX 광주역 연결 사업(100억원) 예산 반영을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1000억원→1610억원) ▲3D융합산업 육성(60억원→230억원) 등 31건에 2928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與野 “재정 확대” 정부 “부작용 우려”

경제위기 대응 기싸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여야 의원 모두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정저권과 정부의 기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정책질의를 통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새해 예산안의 방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와 같은 경제 침체기에는 재정의 적극 역할이 강조돼야 하지만 서민경제 지원 예산이 일부 부족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 예산안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대폭 삭감하고 경제위기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내년 예산 편성은 현 정부가 하지만 예산 집행은 금년 12월에 제출될 다음 정부가 하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정부가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되고, 이해관계를 따져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위기극복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 단계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만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여야는 대선을 목전에 두고 중도·서민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복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이날 4·11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10개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편성이 미흡하다면서 관련 예산을 1조~1조5000억원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도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한 데 이어 나흘간 비경제부처·경제부처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가동하고 나서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역시, 한국말이 어렵긴 하다



“한내”
“당신이 좋아”
“잘 될 거야”
라는 말 대신
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진심을 만나다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밀레「한국명산 16좌 원정대」모집 연합길 대장과 함께 한국명산 16좌를 오르십시오, 도전하는 자만이 산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백화점 및 대리점 또는 아래 참가 신청가능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매장 혹은 www.millet.co.kr참조)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 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주최: MILLET / 주관: Mtour / 후원: 광주일보사

입금번제 실행 11월 23일(금) / 천관산 [장천재주차장-양근암-연대봉-환희대-구정봉-선인봉-장천재] *일정 및 등산코스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덟번째 산행은 남해금산입니다

WWW.MILLET.CO.KR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